

빛의 릴레이: 우리의 손에 담긴 복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아주 특별한 선교 이야기



복음의 빛,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 (되)’ 아래 숨겨진 빛



‘등경’ 위에 비추는 빛

예수님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만 빛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

빛을 전하는 4단계 사이클



예수님의 명령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된 사람이 다시 새로운 사람에게로 '가게' 되는 영원한 생명의 사이클입니다.

‘가라!’ 비행기를 타야만 갈 수 있나요?

온 세상 (The World)

· 아프리카, 일본, 중앙아시아까지

학교 (School)

· 내 짝꿍과 친구들에게

우리 집 (Home)

·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에게



나

우리 동네
(Neighborhood)

· 이웃 사람들에게

온 세상 (The World)

· 북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하나님이 먼 나라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지금 서 있는 바로 이곳(가정, 학교, 동네)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훌륭한 '가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



제자는 선생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도록
도와주는 모든 과정이 바로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이기는 약속



선교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라!’ 하시고 우리를 혼자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가라, 내가 함께할게’라고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복음은 끊어지지 않는 릴레이 경주



앞사람이 달려와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어야 경주가 계속되듯,
복음도 누군가의 손에서 누군가의 손으로 전해져 오늘 우리에게까지 도착했습니다.

한반도를 향한 빛의 시작 (준비된 복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부터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조선 밖에서부터 **복음의 바톤**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둠을 밝힌 복음의 바톤 터치



③
서상륜

복음을 듣고 성경을 품고
조선 땅으로 들어옴.

④

1885년 :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렌 선교사

학교 설립, 병원 치료, 복음 전파.

멀리서 온 선교사님들과 한국인 전도자들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복음을 자기만 알고 멈췄다면, 우리는 오늘 예배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빛나는 바톤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An illustration showing a hand in a white robe, representing Jesus, holding a glowing golden baton. The baton is being passed towards another hand, symbolizing the transfer of the mission. The background is a warm, golden glow.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거친 복음의 바톤.
이제 우리가 이 바톤을 쥐고 달릴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나의 삶으로 비추는 빛: 기도와 사랑

기도할 수 있어요



- 선교사님과 미전도 국가를 위해
- 학교 친구를 위해
- 가족을 위해

“하나님, 제 친구가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요



- 외로운 친구에게 다가가기
- 놀림받는 친구 편에 서주기
- 미움 대신 용서하기

“왜 저 친구는 다르게 행동하지?
아, 예수님을 믿는구나!”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와 일상 속 따뜻한 행동 하나가 친구들에게 비춰지는 강력한 빛이 됩니다.

세상으로 뻗어가는 빛: 전도와 후원

복음을 말로
전할 수 있어요



어렵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짧은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우리 교회에 같이 가볼래?”

선교사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직접 먼 나라에 가지 못해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 선교사님께 편지 쓰기
- 헌금으로 돕기
- 선교지 친구들 기억하기

진심을 담은 작은 말 한마디와, 먼 곳을 향한 작은 나눔이
복음의 바톤을 온 세상으로 날려 보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은 나에게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학교로, 가정으로, 동네로, 온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사랑, 말 한마디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빛의 릴레이, 이제 여러분이 달릴 차례입니다!